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순교복자 박취득 라우렌시오의 출생지 관련 자료를 비교하다 - 모방 신부 서한과 다블뤼 주교의 기록

지난 『상교우서』 86호(2022년 7월호)에서 필자는 순교복자 이도기(바오로), 박취득(라우렌시오), 김세박(암브로시오)에 대한 최초의 교회 측 기록이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799년 홍주에서 순교한 박취득의 출생지를 언급할 때 전거 자료를 잘못 인용했고, 다블뤼 주교의 기록 중 빠뜨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필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1] 홍주 순교복자 4위(원시장 베드로, 방 프란치스코, 황일광 시몬, 박취득 라우렌시오) [홍주성지]

『상교우서』 86호에서 필자는 박(취득) 라우렌시오가 ‘충청도 황무실’ 출신이라는 모방 신부의 1836년 12월 9일 자 서한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홍주 사람’[순교자 약전]이라고만 나오고 구체적인 지명은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취득의 출생지가 황무실이었다는 증언을 모방 신부 서한을 통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방 신부의 서한을 통해 박취득이 ‘황무실’ 출신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블뤼 주교의 기록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잘못된 인용과 빠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취득) 라우렌시오가 ‘홍주 사람’이라고 나온 다블뤼 주교의 기록은 ‘순교자 약전’[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이 아니고 ‘비망기’(f.50)[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입니다. 뒤에 언급할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자료집 제1집』(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05)[이하 ‘시복자료집’으로 약칭]의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인용한 필자의 실수입니다. ‘시복자료집’ 237쪽에 나오는 자료 제목 “『조선 순교사 약전』”은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오키인데,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자는 ‘순교자 약전’과 ‘비망기’ 외에 다른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박취득의 출생지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박취득의 출생지는 모방 신부의 서한뿐 아니라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도 확인되며, 두 기록에 나오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다블뤼 주교의 다른 자료는 ‘박(취득) 라우렌시오 순교 보고서’입니다.

### 다블뤼 주교의 ‘박(취득) 라우렌시오 순교 보고서’(1859)와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1874)

다블뤼 주교는 1859년에 박취득 순교 보고서를 파리의방전교회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전교회연보(APF)』 186호(pp.392~400)에 실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블뤼 주교의 다른 기록[약전과 비망기]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레 신부도 자신의 저서 『한국천주교회사』(1권, pp.93~99)에 박취득 순교 보고서를 옮겨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천주교회사』와 『전교회연보』에 나오는 박취득의 약전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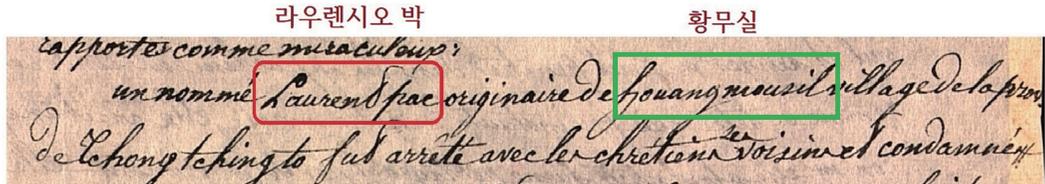
일례로 『전교회연보』(순교보고서)에 나오는 박취득의 출생지가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달레 신부가 종종 자기가 인용한 사료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내용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박취득의 출생지도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사』의 역주본(상권 410~417쪽)에도 박취득의 출생지가 언급되지 않았고,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내용을 수록한 ‘시복자료집 제1집’(241~259쪽)에도 출생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복자료집 제1집’의 편집자는 『한국천주교회사』의 박취득 관련 내용이 ‘전교 잡지’[전교회연보]에 실린 다블뤼 주교의 전기[보고서]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241쪽 각주 5번] 그러나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박취득의 출생지가 『한국천주교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상교우서』 86호의 원고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시복자료집만 근거로 해서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박취득의 출생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서술했습니다. 필자의 불찰과는 별개로 시복 대상자의 자료를 종합·정리하는 시복자료집이라면 원본인 다블뤼 주교의 박취득 순교 보고서[전교회연보 게재]를 수록했어야 했는데, 달레 신부의 편집본인 『한국천주교회사』를 전거 자료로 인용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복자료집 간행 이후 박취득 자료와 관련하여 『전교회연보』(순교보고서)와 『한국천주교회사』의 차이를 언급한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작고한 최석우 문시놀은 2006년 당시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를 번역하면서도 이도기와 박취득에 대해서는 다블뤼 주교가 별도로 작성한 순교 보고서를 번역해서 『교회와 역사』에 연재했습니다. 박취득과 관련하여 『전교회연보』와 『한국천주교회사』의 기록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일례로 박취득의 출생지가 달레 신부의 기록에 빠져 있음을 밝혔습니다. 『교회와 역사』 377, 2006, 5쪽의 각주 필자가 이 내용을 원고 작성 전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 박취득의 출생지 - 다블뤼 주교 보고서의 ‘원당산’과 모방 신부 서한의 ‘황무실’

‘박(취득) 라우렌시오 순교 보고서’ 중 출생지 부분은 [그림 2] (아래) 프랑스어 첫째 문장에 해당합니다. 최석우 몬시뇰은 이 문장을 “박 노렌조(取得)는 홍주 고을의 원당산 마을의 가난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교회와 역사』 377, 5쪽]라고 번역했는데, 박취득의 출생지 ‘Ouen-tang-san’을 ‘원당산’으로 읽은 것입니다.



라우렌시오 박

황무실

라우렌시오 박(취득) 원당산  
 «Laurent Pak naquit au village de Ouen-tang-san, au district de Hong-tsiou, de parents pauvres et de la basse classe. Son caractère était ferme et déterminé; il avait environ quinze ans quand sa famille fut instruite de la religion. Laurent l'embrassa avec ferveur: son cœur sur-

[그림2] 박취득의 출생지 관련 자료

(위) 모방 신부의 1836년 12월 9일자 서한(A-MEP, Vol.1260, f.110)

(아래) 다블뤼 주교의 1859년 ‘박취득 라우렌시오 순교 보고서’(『전교회연보(APF)』 186, p.393)

최석우 몬시뇰은 홍주에 속한 ‘원당산’의 현재 지명을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지명 관련 참고서적을 활용하여 홍주 원당산이 현재 어느 곳인지 추정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옛 지명을 고증할 때 많이 활용되는 『한국 지명 총람』 4(충남편 상)(한글학회, 1974)과 『한글 땅이름 큰사전』 하권(한글학회, 1991)을 검색해보면 원당산이라는 산과 마을 이름이 몇군데 나오는데 그중 충청도 지역으로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의 원당산 마을이 확인됩니다. 인터넷 검색(네이버 ‘플레이스’)으로도 원당산은 당산리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산리는 조선시대에는 홍주가 아니라 면천군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14년에 당진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1859년 다블뤼의 보고서에 나오는 홍주 원당산과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필자가 좀 더 검색해 보니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8권 충청도 홍주목(洪州牧)의 새로 추가한 항목에서 원당산(元堂山)이 확인됩니다. 원당산은 홍주읍에서 북쪽으로 40리 떨어져 있다고 나옵니다.[[新增] 元堂山在州北四十里] 다만, 여기서 원당산은 산천(山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이 아니라 산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필자는 계속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결과 박취득의 출생지인 원당산으로서 좀 더 개연성이 높은 지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옛 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한자 지명의 순우리말 지명과 현재 지명을 밝힌 연구서 시리즈[고지도를 통해 본 (지역)지명연구를 2010년대에 발간했는데, 그중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연구(2)』(2014, 149쪽)에서 원당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홍주 합북

면(合北面)에 속한 원당산남리(元堂山南里)와 원당산북리(元堂山北里)가 그것입니다. 남리와 북리로 구분되어 있는 원당산(元堂山) 마을이 현재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해당한다고 위의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홍주 합북면은 1895년 면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당시 당진군에 편입된 곳입니다.

1859년 다블뤼의 보고서에 나오는 홍주 ‘Ouen-tang-san’(원당산)은 현재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로 추정되며, 모방 신부의 1836년 12월 9일자 서한에 나오는 충청도 ‘Houangmusil’(황무실)[현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조선시대에는 덕산군 고산면에 속했는데 1914년에 예산군에 편입됨]과는 서로 다른 박취득 출생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를 보면, 현재 운산리[원당산]와 호음리[황무실]는 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방 신부와 다블뤼 주교는 다른 시기에 다른 자료를 입수하여 기록에 남겼는데, 두 기록에 나오는 박취득의 출생지가 서로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림3] 홍주 원당산[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과 덕산 황무실[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이와 같이 순교복자 박취득의 출생지는 1836년 모방 신부 서한에서는 ‘충청도 황무실’로, 1859년의 다블뤼 주교 순교 보고서(『전교회연보』 186호)에서는 ‘홍주 원당산’으로 나오며, 두 지역의 현재 지명을 고증해 보면 매우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의 검토와 검증을 더 충실하게 해서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천주교회 역사와 자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1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